



미국, 개인 의료비 부채감면 정책 논의

홍보배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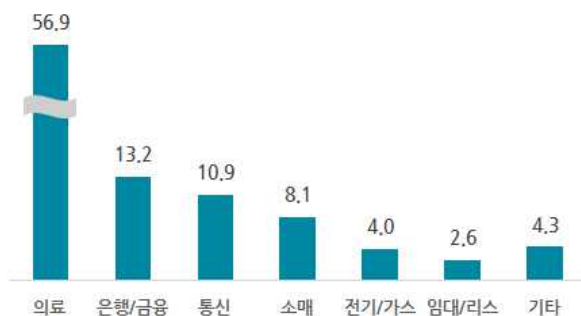
미국은 개인 의료비 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채 부담이 높음. 의료비 부채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주나 시가 개인의 의료비 부채를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비 부채감면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찬성 의견과, 이는 단기적 정책에 불과하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 의견이 논쟁 중임

○ 미국은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 등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1년 6월 기준 의료비 부채는 880억 달러로, 제3자 채권추심(Third-party Debt Collection)잔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항목임(〈그림 1〉 참조)¹⁾
 - 미국인 5명 중 약 1명(19%)이 의료비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채 금액이 가구 연 소득의 20%를 넘는 고액 채무(High Medical Debt) 가구의 비중도 작지 않은(4%) 수준임²⁾
- 특히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그림 2〉 참조)³⁾

〈그림 1〉 미국 제3자 채권추심 항목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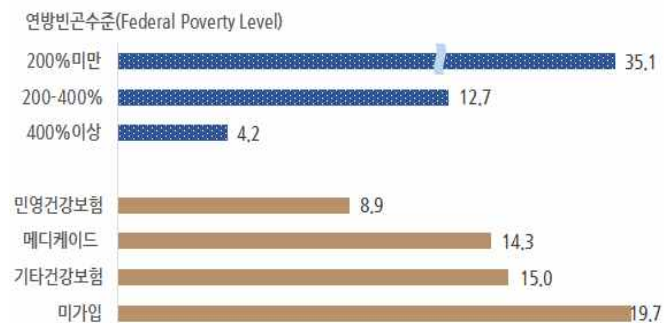


주: 2022년 1분기 자료임

자료: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023. 1)

〈그림 2〉 가구소득별, 건강보험 보장별 의료비 부채 부담 현황

(단위: %)



주: '지난 1년간 의료비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응답률임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3. 1)

1)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022. 2), "Medical Debt Burden in the United States"

2) Census Bureau(2021. 4. 7), "19% of U.S. Households Could Not Afford to Pay for Medical Care Right Away"

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3. 1), "Problems Paying Medical Bills: United States, 2021"

- 의료비 부채에 대한 부담은 개인에게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
 - 의료비 부채는 저축·은퇴 자금 등 자산의 소진, 신용카드 대출 등 타 부채의 증가 등 재정 악화로 다시 이어지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의료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은 신용도가 하락하여 향후 모기지 신청, 자동차·보험 구입 또는 취업 등 중요한 재무 결정에 있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개인 파산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음
 - 의료비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결정 요인⁴⁾으로 나타남⁵⁾
 - 추가적인 의료비 부채를 우려함으로 인해 필수 또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
- 이에 따라, 개인의 의료비 부채로 인한 부담 및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해주고자 최근 주(State) 또는 시(City)별로 예산이나 기금을 의료비 부채감면에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실행하고 있음
 - 코네티컷(Connecticut)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미국 구제계획법(America Rescue Plan Act; ARPA) 기금의 일부인 약 2,000만 달러를 주민의 의료비 부채감면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음⁶⁾
 - 유타(Utah)주 상원에서도 의료비 부채감면을 위한 계정(Medical Debt Relief Restricted Account)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주민의 의료비 부채감면에 사용하는 법안(S.B.195)을 도입하고자 함⁷⁾
 - 오하이오(Ohio)주의 톨리도(Toledo)시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의 피츠버그(Pittsburgh)시에서도 ARPA 기금에서 각각 180만 달러, 100만 달러를 해당 시민의 의료비 부채감면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⁸⁾
-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 부채감면 정책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찬반 논쟁이 있음
 - 정부는 의료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부채감면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
 - 의료비 부채감면을 통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는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⁹⁾
 - 그러나 부채감면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의료비 부채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임
 - 의료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의료 이용이 증가했지만, 이는 단기적(약 3분기)인 효과만 있었음¹⁰⁾
 - 또한 보험 가입, 개인의 저축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한 개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부채감면 정책의 유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됨

4)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H)이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의학적 요인들(Non-medical factors)로 정의하고 있음

5) Carlos F. Mendes de Leon and Jennifer J. Griggs(2021), "Medical Debt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JAMA*

6) The Office of Governor Ned Lamont(2023. 2. 2), "Governor Lamont Announces 2023 Legislative Proposal: Cancel Medical Debt for Connecticut Residents"

7) State of Utah(2023. 2. 8), "Medical Debt Relief", Bill Text: UT SB0195

8) The New York Times(2022. 12. 29), "Medical Debt is Being Erased in Ohio and Illinois. Is Your Town Next?"

9) The Greenlining Institute(2021. 3), "Solving the Medical Debt Crisis"

10) Alyce S. Adams et al.(2021. 9), "The Impact of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on Health Care Utilization", *NBER*